

鄭曄의 「金剛錄」에 나타난 議論의 양상 연구

정 한 기*

1. 서론
 2. 「金剛錄」의 창작 배경
 3. 「金剛錄」에 나타난 議論의 양상과 특징
 4. 결론
- (1) 백성의 삶에 대한 官人으로서의 반성
(2) 存養과 窮理에 대한 儒者로서의 내면성
찰
(3) 景物의 不遇와 隱者로서의 처지대입

1. 서론

「金剛錄」은 鄭曄(1563~1625)이 금강산을 유람한 체험을 기록한 山水遊記¹⁾로 『守夢集』 卷3 雜著에 실려 있다.

鄭曄은 1617년 襄陽府使로 내려와 이듬해인 1618년 4월 금강산을 유람하고 그 체험을 「金剛錄」에 기록하였다. 鄭曄은 경물의 아름다움을 감탄하거나 흥취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승려들과 불교의 교리에 대하여 토론하거나 의론을 개진하기도 한다. 「金剛錄」에 드러난 이러한 양상은 遊山을 통하여 심신을 수양하고 경물에서 이치를 찾으려고 하였던 유산문학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특히 「金剛錄」에는 작가의 議論이 빈번히 개진되고 있어 의론이 전대에 창작된 산수유기와 비하여 확장된 면이 있다.

「金剛錄」에 드러난 議論에는 작가가 세상의 이치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사대부들의 학문 도야를 경계하는 내용이 있어 전대 도학자들이 창작한 산수유기와 일치하는 면이 있지만, 이와 다르게 의론에 작가의 고민이나 懷疑 등 내면적 모습이 드러나기도 한다. 의론에 작가

* 필자 : 세종대 강사

1) 山水遊記는 특정한 인물이 산수에 노닐 체험을 기록한 산문이다. 이러한 산문에 대한 명칭으로 '山水記'·'山水遊錄'·'山水遊記' 등이 있다. 박희병은 遊錄과 遊記는 가리키는 바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나 山水記에는 遊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山水詩·山水畫라는 명칭과 짝을 이루고 있으므로 山水遊記라는 빈다한 명칭보다 山水記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陳必祥은 작가가 직접 여행하고 경물을 묘사한 작품은 山水遊記이고 작가가 여행하지 않고 경물을 묘사한 작품은 山水記라고 하였다. 山水記라는 명칭은 가리키는 바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작가가 직접 여행하지 않은 작품까지 포함될 여지가 있다. 이종목과 호승희는 '遊錄'과 '遊記'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하지만 '유록'이나 '유기'의 제명이 붙은 작품들이 구성과 寫景에 議論이 가미된 점 등에서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작품들도 있고, 특정한 인물이 산수에서 노닐 체험을 기록한 산문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陳必祥이 언급한 '山水遊記'라는 명칭을 따른다. 박희병, 「韓國 山水記 研究」, 『古典文學研究』 8집, 韓國古典文學會, 1993; 陳必祥, 沈慶吳 譯, 『한문문체론』, 이희, 1998; 호승희, 「조선전기 유산록 연구」, 『한국한문학회연구』 18집, 한국한문학회, 1995; 이종목, 「유산의 풍속과 유기류의 전통」, 『古典文學研究』 12집, 韓國古典文學會, 1997 참조.

의 내면성이 드러나는 것은 전대 산수유기와는 다른 점으로 보인다. 본고는 이점에 주목하여 「金剛錄」에 드러난 議論을 중심으로 그것이 전대의 산수유기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작품의 창작 배경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선행 연구자들이 이룩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金剛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편이고 산수유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산수유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박희병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희병은 산수기의 주된 작자층이 양반 사대부들이고 이들은 산수체험을 통하여 군자가 갖추어야 할 덕과 기상을 배양하려 하였던 것이 산수기의 사상적 배경이 된다고 하고, 산수기의 면모나 지향은 시대와 작자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특징은 “산수자연의 아름다움, 장엄함, 기묘함에 대한 감탄”과 “풍속·지리·고적·설화에 대한 관심”이고 산수기는 “산수시에서처럼 주체가 대상에 몰입함으로써 주체와 대상간의 간격이 없어지면서 무아지경에 도달하는 법은 없으며 대상은 대상, 주체는 주체로서 각기 떨어져 존재할 뿐”이라고 하였다.²⁾

호승희는 유산록이 “등정동기-날짜별 등람기록-등람에 대한 총평”이라는 세 단계로 구성되고 이러한 구성은 金宗直의 「遊頭流錄」에서 처음으로 보이며, 조선전기 유산록의 주요한 작품들은 김종직의 「유두류록」을 비롯하여 周世鵬의 「遊清涼山錄」, 李滉의 「遊小白山錄」 등으로 “영남 사람들의 의도 아래 記體에서 분파되어 나온 산문양식”이라고 하였다.³⁾

이종묵은 유산자가 유가의 문인인 작품에서는 주로 산수간에 유산자의 심성을 수양하는 태도와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는 治人의 태도와 학문적 고증을 통하여 불가·도가·민간풍속을 비판하는 태도가 드러나고, 유산자가 도가 계열인 작품에서는 도가 성지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의 태도가 드러나며, 일반문인의 작품에서는 문장력을 기르기 위해서 유산한다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하였다.⁴⁾

이경수는 16세기 금강산을 유람하고 지은 산수유기의 작가에는 평생 벼슬길을 거부하고 방외인의 삶을 살았던 ‘隱逸者’, 기묘사화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재야에서 학문에 정진하였던 ‘道學者’, 산수 유람을 통하여 심성을 수양하고 지기를 키움으로서 문장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를 지녔던 ‘靑年書生’, 지방관에 부임한 ‘官人 士大夫’ 등의 유형이 있고, 각 작가의 저술은 “仙境 追求”·“道理 體得”·“探勝과 修練”·“巡行과 遊覽” 등이 배경이 된다고 하였다.⁵⁾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는 산수유기에 나타난 전반적인 특징과 산수유기의 발생 배경 등을 해명하고 산수유기의 개별 작품에 드러난 내용상의 차이점은 작가의 경향이나 창작동기에

2) 박희병, 앞의 논문.

3) 호승희, 앞의 논문.

4) 이종묵, 앞의 논문.

5) 이경수, 「16세기 금강산 기행문의 작자와 저술배경」, 『국문학연구 2000』, 태학사, 2000.

따른 것이라는 면을 언급하였다. 본고는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이룩한 업적을 수용하여 「金剛錄」이라는 작품이 전대의 산수유기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금강록」의 창작 배경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의론을 중심으로 「금강록」과 전대 산수유기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요약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金剛錄」의 창작 배경

鄭曄(1563~1625)은 본관이 草溪이고, 자는 時會, 호는 守夢이다. 그는 4세 때 시를 지어 李珣와 鄭惟吉로부터 신동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宋翼弼의 문하에서 수업하였고 成渾과 이이의 문하에 출입하기도 하였다. 1583년(선조 16)에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문한직을 시작으로 형조좌랑·황주관판·중화부사·예조정랑·수원부사·동부승지·우부승지·나주목사·예조참의 등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602년(선조 35) 鄭仁弘이 집권하여 성혼을 배척할 때 성혼의 문인이었던 鄭曄도 중성부사로 좌천된다. 鄭曄은 중성부사로 있을 때 善治를 하였으나, 奇自憲의 참소로 동래로 유배가게 되었다. 1605년(선조 38) 유배에서 풀려난 뒤 예조참의·충청감사·도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613년(광해 5) 도승지로 있을 때 癸丑獄事가 일어나자 도승지를 사임하려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17년(광해 9) 조정에서 仁穆大妃 廢黜論이 제기되자 양양부사로 나갔다. 이듬해 폐출의 조치가 단행되자 관직을 버리고 여주로 돌아와 지냈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다시 관직에 등용되어 대사성·대사간·대사헌·우참찬 등을 역임하다가 격무로 병을 얻어 1625년(인조 3) 63세의 일기로 세상을 마쳤다.

鄭曄은 1583년 21세의 나이로 환로에 든 이후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는 관인의 삶을 살았다. 이러한 삶 가운데 임진왜란, 계축옥사, 폐비론, 인조반정 등의 사건을 겪게 된다. 「金剛錄」은 고위직으로 승진을 계속하던 鄭曄이 계축옥사를 겪고 난 후 폐비론이 대두될 때 양양부사라는 외직으로 나와서 금강산을 여행하고 지은 작품이다.

계축옥사는 주지하듯이 1613년(광해 5) 7인의 庶子가 조령에서 은을 약탈한 사건이 大北派의 조정에 의하여 영창대군과 김제남을 비롯하여 영창대군을 지지하였던 小北派를 제거하는 사건으로 확대된 일이다. 1613년 봄 사건이 발발한 이후 6월 1일에 김제남이 사사되고 영창대군은 庶人으로 강등되어 그해 8월 2일에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1614년에 죽는다.

도승지로 있던 鄭曄은 1613년 6월 1일 승지인 尹重三·權縉 등과 함께 “의(영창대군)는 이미 폐서인이 되어 속직에서 끊어졌으니 궁중에서 편안히 있게 할 수 없으니 빨리 조처하소서”⁶⁾라는 상소를 올린다. 상소를 올린 다음날 鄭曄은 벼슬을 사직하는 소를 올리지만 허

락받지 못한다.⁷⁾ 옥사가 끝난 다음해인 1615년에 계축옥사에서 공이 있었던 인물들에게 포상하는 조서를 내리는데 鄭曄은 한 품계 승진하게 된다.⁸⁾ 鄭曄은 계축옥사에서 영창대군의 유배를 지지하였던 인물로 보인다. 하지만 영창대군을 유배시키라는 상소를 올린 다음 날에 도승지를 사임하는 상소를 올린 것을 보아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적극적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鄭曄은 1617년 폐비론이 한창 거론되고 있을 때 양양부사를 자청하여 외직으로 나간다. 仁穆大妃 廢黜이 확정된 1618년에 양양부사마저 그만두고 향리인 여주에 은거한다. 광해군은 1619년과 1622년 두 차례에 걸쳐 출사하라고 독촉하지만 鄭曄은 출사하지 않는다. 鄭曄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사관은 “바르고 확고한 처세관으로 올바른 몸가짐을 하였다”,⁹⁾ “한 시대의 명망 있는 인물로서 몸을 깨끗이 하여 물러나 돌아갔으니 사대부의 나아가고 물러가는 의리에 가깝다”¹⁰⁾라고 하였다. 사관은 鄭曄이 영창대군을 유배시키라는 상소에 가담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보면 鄭曄이 계축옥사에서 취한 행동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영창대군의 유배를 지지하는 상소를 올린 다음 곧이어 관직을 사임하는 상소를 올린 점을 보아 계축옥사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관인으로서 가책이나 갈등을 느꼈고 조정의 현실에 대하여 환멸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金剛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金剛錄」에서 鄭曄은 양양부사로 내려온 것은 함께 했던 벗들이 모두 화에 연루되었는데 혼자 아름다운 곳에 노닐며 세상과 떨어진 것이 다행이라고 하였고, 폐비론을 반대하다가 복청에 귀양간 李恒福의 편지를 받고 비감에 잠기기도 하였다.¹¹⁾ 이것은 자신이 화를 피하였다는 표면적인 의미 외에 벗들과 이항복은 올바른 도리를 다하다가 죽거나 유배당했음에 비하여 자신은 목숨과 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책을 포함한다.

결국 정업은 계축옥사의 과정에서 올바른 도리를 행하지 못하였다는 가책과 갈등, 불의가 횡행하는 조정 현실에 대한 환멸 등이 동기가 되어 1617년 자청하여 외직에 나가게 되고 그 이듬해 금강산을 여행하게 된다. 따라서 「金剛錄」의 창작 배경에는 鄭曄의 관인으로서의 가책과 갈등, 조정 현실에 대한 환멸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金剛錄」의 이러한 배경은 전대에 창작한 산수유기와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경수는 16세기 금강산을 유람하고 지은 산수유기의 작가에는 ‘隱逸者’·‘道學者’·‘青年書

6) “穢既廢爲庶人，屬籍已絕，不可一刻晏處宮中。請斯速處置。”(『光海君日記』卷67, 5年 6月 1日條)

7) “都承旨鄭曄，上疏辭職，不許。”(『光海君日記』卷67, 5年 6月 6日條)

8) 『光海君日記』卷98, 7年 12月 29日條。

9) “曄·晬光，皆負重望，見時事混濁，避居所庄，真確自清。”(『光海君日記』卷146, 11年 11月 22日條)

10) “鄭曄·李晬光，以一大名流，潔身退歸，庶幾士大夫進退之義。”(『光海君日記』卷174, 14年 2月 23日條)

11) “余上年陳情乞養，聖恩優許，得幸巫山，私幸有三。奉八十老母專城榮養，其幸一也，一時朋輩俱不免禍網，而余獨優遊仙區，與世相遠，其幸二也，欲一見金剛而不可得，今於垂老之年，宿願將諧，其幸三也。(…)初三日。(…)襄陽武人姜孝先，自北道還，袖繫城答書來見。披來悅然此老面目，可慰隔別懷。此老浮沈相位數十年，癸丑變被彈，即閑于郊。去年冬，當慈殿廢黜議，凜然引虞舜爲辭。三司論以護逆，竄北青矣”(鄭曄，『守夢集』卷3 雜著「金剛錄」)。

生' · '官人 士大夫' 등이 있다고 하였다.¹²⁾ 「金剛錄」의 작가 鄭曄는 지방관에 부임한 '관인 사대부'에 속한다. 16세기 말경 '관인 사대부'들이 금강산을 체험하고 지은 산수유기의 대표적인 작품이 盧景任의 「遊金剛山記」(1595), 金蓋國의 「關東錄」(1596), 裴龍吉의 「金剛山記」(1600) 등이다. 이들 관인 사대부에게는 임란 이후 민심을 수습하거나 병력을 재정비하는 공무가 우선되었다. 이들의 작품이 “개인의 체험보다 견문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데 치중하는 경향”¹³⁾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점에서 중앙 관인의 삶을 살다가 조정의 정치 현실에 대한 환멸, 관인의 삶에 갈등과 가책을 느껴 지방관의 길을 택하였던 鄭曄과는 차이가 있다.

3. 「金剛錄」에 나타난 議論의 양상과 특징

「金剛錄」은 鄭曄이 서울에서 온 두 사위와 손자를 데리고 4월 1일 양양에서 출발하여 고성, 외금강, 유점사, 마하연, 만폭동, 장안사, 쇠랑동, 통천, 발연폭포, 삼일포를 거쳐 4월 18일 양양에 돌아올 때까지의 체험을 기록한 작품이다. 이러한 여정에서 작가는 경물을 묘사하고 이에 대한 흥취를 드러내거나 이치를 설명하는 의론을 개진한다. 「金剛錄」에 나타난 작가의 의론에는 심성 수양에 대한 것, 만물이 생성하게 된 도리에 대한 것, 학문 도야에 대한 것, 백성들의 곤궁한 삶에 대한 것, 경물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不遇에 대한 것 등이 있다. 修養은 유자의 인격완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誠敬을 통하여 인욕을 막는 행위 주체자의 각성을 중시하는 存心養性과 사물의 所以然을 궁구하는 窮理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¹⁴⁾ 이를 적용하면 「金剛錄」에 나타난 심성 수양, 만물이 생성하게 된 도리에 대한 궁구, 학문 도야에 대한 것 등은 하나의 항목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金剛錄」에 나타난 의론은 크게 작가가 官人로서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개진한 내용, 작가가 儒者로서 存養이나 窮理에 대하여 개진한 내용, 작가가 隱者로서 景物의 不遇에 대하여 개진한 내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각각의 내용들을 전대에 창작된 산수유기와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12) 이경수, 앞의 논문.

13) 이경수, 앞의 논문, 209면.

14) 유교사전편찬위원회 편, 『유교대사전』, 박영사, 1990.

(1) 백성의 삶에 대한 官人으로서의 반성

〈자료1〉 金宗直, 「遊頭流錄」

① 산의 동쪽과 서쪽에는 계곡이 넓은데 잡목은 없고 모두 삼나무·회나무·소나무·녹나무들이다. 나무들 중 말라죽어 빼대만 서 있는 것이 셋 중에 하나이다. 간간이 단풍이 있어 그림처럼 아름답다. 산등성이에 있는 수목은 바람과 안개에 모두 시달림을 받아 가지가 모두 왼쪽으로 쓰러져 굽어 있고 머리카락처럼 나부긴다. 말하기를 “해송이 더욱 많아 백성들이 매년 가을에 채취하여 공물로 충당합니다. 올해에는 한 그루의 나무에도 열매를 맺은 것이 없는데 악착스럽게 양을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 백성들이 어찌하겠습니까? 수령께서 마침 보셨으니 정말 다행입니다”라고 하였다. (…)

② 시내 위에 두어 칸 되는 초막이 있는데 가시로 울타리를 둘러고, 흙으로 만든 아궁이가 있으니 이것은 매를 잡는 초막이다. 내가 영랑재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보니 산의 곳곳에 매를 잡는 올가미를 설치해 둔 것이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이다. 아직 가을이 깊지 않아 매를 잡는 자가 없다. 매는 구름 사이로 날아다니는 동물이라 험준한 땅에 올가미를 쳐놓고 깊숙이 숨어 앉아 노리는 자가 있는 줄을 어찌 알겠는가? 매는 먹이를 보고 탐내다가 마침내 그물에 걸려 사람들의 노리개가 되니 사람에게 경계할 만한 일이다. 이 가운데 궁궐에 진상하는 것은 한두 쌍에 불과하나 官에 진상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떨어진 옷과 죽만 먹는 사람들을 시켜 밤낮으로 눈보라를 맞으면서 산봉우리에 엮드려 있게 하니 어진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차마 못할 일이다.¹⁵⁾

〈자료2〉 金駟孫, 「頭流紀行錄」

골짜기를 나와서 북쪽으로 가니 오른쪽은 산이고 왼쪽은 물길이어서 길이 매우 위태하다. 수풀을 지나 10리쯤 가니 동구가 점점 넓어졌다. 비옥한 들이 있어 농사지어 먹을 만하다. 또 십리를 가니 백성이 살고 있는데 나무를 이용하여 도구를 만들고 쇠를 단련하여 재료를 만드는 것으로 생업을 삼았다. 내가 “꽃이 피면 봄이 되고 잎이 지면 가을이 된다는 것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말하였더니, 따라오던 중이 “땅이 치우쳐 있고 里正이 꺼리는 것이 없어 백성들이 賦役의 번다함과 막중함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5리를 나가

15) “山之東西溪谷開闊，望之無雜樹，皆杉檜松栂，槁死骨立者，居三之一。往往間以丹楓，正如圖畫。其在岡脊者，困於風霧，枝幹皆左靡拳曲，雲髮颯飄。云：‘海松尤多，土人每秋採之，以充貢額。今世無一樹帶穀，苟取盈，則吾民奈何？守令適見之，是則幸也。’ (…)

見溪上草廡數間，周以柴柵，有土炕，乃內廂捕鷹幕也。余自永郎帖至此，見岡巒處處設捕鷹之具，不可勝記。秋氣未高，時無採捕者。鷹準雲漢間物也，安知埃絕之地，有執械豐茹而伺者？見餌而貪，猝爲羅網所絀，條鏃所制，亦可以傲人矣。且夫進獻，不過一二連，而謨充獻阮。使鶉衣啜飧者，日夜耐風雪，踰伏於千仞峯頭，有仁心者，所不忍也。”(金宗直, 『佔畢齋集』 권2 「遊頭流錄」,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 7, 114~125면)

서 목계사에 다다랐다.¹⁶⁾

〈자료1〉 「遊頭流錄」은 金宗直(1431~1492)이 함양군수로 있을 때인 1473년(성종 4)에 여행한 체험을 기록한 작품이다. ①은 백성들이 산등성이에 있는 소나무의 열매로 공물을 충당하는데 올해는 열매 맺은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官에서 양을 채우려고 하여 백성들의 곤궁이 심하다는 내용이다. 官의 욕심 때문에 백성들이 곤궁에 시달리고 있다. 산등성이의 나무들로 고달픈 백성들, 바람과 안개로 官을 비유하여 官에 시달리는 백성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¹⁷⁾ ②는 官이 조정에 진상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시켜 매를 잡게 하는데 실제 조정에 진상하는 것은 몇 마리 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관이 착복하여 백성들이 시달림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자료1〉에는 공물을 채우려는 지방관의 수탈로 인한 백성의 곤궁함이 드러난다.

〈자료2〉 「頭流紀行錄」은 金駟孫(1464~1498)이 진주의 教授로 있던 1488년경에 창작한 작품이다. 위 구절은 작가가 지리산의 목계사로 가는 도중에 본 것을 진술한 것이다. 지리산은 비옥한 들이 있고 나무를 이용하여 도구를 만들거나 쇠를 단련하여 재료를 만드는 것으로 생업을 삼을 수 있어 백성들이 생업을 걱정하지 않고 살 만한 낙원으로 판단되는 곳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중들은 백성들이 里正의 부역에 시달린다고 한다. 〈자료2〉에는 里正이라는 지방의 하급 관리의 전횡으로 인한 백성들의 곤궁한 삶이 드러난다.

〈자료1〉과 〈자료2〉는 작가의 직위가 군수와 교수라는 차이가 있으나, 백성의 곤궁한 삶이 드러나 있으며 이를 유발한 지방관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 일치한다.

「金剛錄」에 나타난 백성의 삶에 대하여 의론을 개진한 구절은 〈자료1〉·〈자료2〉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자료3〉 鄭曄, 「金剛錄」

혈성루에 들어가니 (...) 절 뒤에는 나옹의 부도가 있고 범당 앞에는 육면각(六面閣)이 있

16) “出洞而北，右山左水，道甚懸危。行樹林中十里許，洞口稍開豁。有廬原可以耕而食。又十里有居民，木爲業，鍛鐵爲生。余曰：‘花開爲春，落葉爲秋，有是夫！’從僧曰：‘地僻而里正無忌憚，民苦於賦煩役重。’出五里，抵默契寺”(金駟孫, 『濯纓集』 권5 「頭流紀行錄」,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7, 169면)

17) 경물의 모습으로 백성의 困境을 비유한 예는 金駟孫이 지은 「頭流紀行錄」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도 보인다. “自法界至上峯，至香積，皆轉繞層崖而行，崖面皆石葦，山皆疊石，落葉於石眼，而草木之根，因着而生，枝條短折，皆東南靡拳曲蒙茸，不能舒展枝葉。上峯尤甚，杜鵑花始開，一花兩花，而未折之，藻滿枝，正是二月初也。僧云：‘山上花葉，五月始盛，六月始彫。’余問伯勛：‘峯高近天，宜先得陽氣而反後，何也？’伯勛曰：‘大地距天八萬里，而吾行數日而到上峯，峯之高距地，不滿百里，則其距天不知其幾也，不可言先陽 特孤高先受風耳。’余曰：‘凡物之生，其忌高哉！然高不免風雨之萃，卑且遭斧斤之厄，將何擇而可乎？’”(金駟孫, 「頭流紀行錄」,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7, 169면) 작가는 초목의 가지와 잎이 제대로 퍼지 못하고 꽃이 피지 못하는 것을 보고, 높은 곳은 풍우가 몰아치고 낮은 곳은 도끼의 액을 만나므로 物生이 살 곳이 없다고 하였다. 物生이 풍우와 도끼의 액을 만나 어디에도 정착하여 살 수 없는 상황을 백성의 삶에 비유한 것이다. 특히 “초목이 모두 동남쪽으로 쓰러져 구부러지고 가지와 잎을 제대로 퍼지 못한다”고 하여 백성의 삶을 구체화하고 있다.

다. 유명한 사찰이라고 할 만한테도 老僧 한 사람만이 지키고 있다. 대개 近年에 役이 매우 번거로워 중들 역시 편안히 거처할 수 없어 산중의 암자와 사찰들이 모두 비었다. 하물며 백성들이 길 위에서 떠돌아 다니고 열 집에 아홉은 텅 빈 것을 어찌 차마 말하리요? 노년에 몇 말의 곡식을 위하여 관리 노릇을 하며, 죄를 알면서 양심에 거슬리는 짓을 달게 하니 스스로 부끄럽다.¹⁸⁾

위 인용구절은 작가가 정양사에 들러 사찰을 보고 언급한 것이다. 정양사는 유명한 사찰이므로 절을 지키는 승려들이 많아야 할 터이다. 그런데 노승 한 사람만이 절을 지키고 있고 주위의 암자와 사찰에도 지키는 승려가 없이 비어 있는 곳이 많다. 이에 더하여 백성들도 자신의 고향에서 생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비어 있는 집이 많다. 작가는 이것이 ‘近年의 役’이 번다하여 백성들이 편안히 거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작가는 백성들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治者를 비판하고 있어 그 내용이 <자료1> <자료2>와 같다.

그런데 <자료1>과 <자료2>에서 백성들의 곤궁은 공물·진상·이정의 횡포와 같이 지방관의 잘못이라고 하였으나, 위 인용구절에서 백성들의 곤궁은 ‘近年의 役’ 때문이라고 하였다. ‘近年의 役’은 공물이나 진상과는 달리 조정에서 취한 행위와 관련된다. 백성의 곤궁한 양상도 <자료1> <자료2>와는 달리 고향을 등지고 유리결식하는 모습으로 조정이나 제왕의 잘못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작가는 지방관에 대한 비판보다는 조정을 비판하고 있다. 작가는 계축옥사를 겪으면서 관인들의 권력 다툼에 환멸을 느껴 외직으로 내려왔다. 작가는 금강산에서 백성들의 충격적인 삶을 보고 이들을 돌보지 않고 권력 다툼만 하는 조정 대신들을 비판하게 된다. 또한 주목되는 곳은 이어지는 구절이다. 작가는 이러한 백성들의 곤궁이 관인인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였다. 작가가 외직으로 내려온 또 다른 이유는 조정에서의 논란 속에서 느꼈던 가책과 갈등이다. 이러한 가책이 백성들의 삶을 보고 상승 작용하여 조정 관인의 한 사람으로 책임이 있음에도 아직도 관직에 있는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 백성의 삶에 대하여 조정을 비판하거나 작가가 관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경우는 <자료1> <자료2>와 차이가 있으며 이것은 鄭曄이라는 작가가 조정 관인으로서 느꼈던 조정 에 대한 환멸, 자신에 대한 가책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18) “入歇星樓，(…) 寺後有懶翁浮圖，六面閣在堂前。如許名利，獨有一老僧守之，蓋近年役甚煩，緇徒亦不得安居，山中菴刹，大抵皆空，況赤者之流顛途路，十室九空者何忍言哉？自慙老年爲斗粟作吏，甘爲知罪之距心也。”(鄭曄, 『守夢集』卷3 雜著「金剛錄」)

(2) 存養과 窮理에 대한 儒者로서의 내면성찰

〈자료1〉 李滉, 「遊小白山錄」

① 산 위의 기온이 매우 춥고 매서운 바람이 진동하여 멈추지 않아 나무의 자람이 모두 동쪽으로 숙여 있으며 가지가 왜소하며 모자라져 있다. 사월 그름이 되어야 숲의 나무들이 비로소 잎이 나며 일년 동안 자라는 것이 불과 몇寸에 지나지 않는다. 굳셈을 생각하며 괴로움을 견뎌내는 것이 모두 힘써 싸우는 모습이니 깊은 숲이나 큰 골짜기에서 자라는 나무와는 크게 다르다. ② 거처에 따라 氣가 변하고 길러짐에 따라 體가 변함은 사물과 사람이 어찌 다르리오?¹⁹⁾

〈자료2〉 曹植, 「遊頭流錄」

저녁에 여관에 들었는데 집이 매우 작아서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니 방은 다리도 뻗지 못할 정도이고 벽은 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이다. 처음에 나 한 몸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더니 이미 네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를 베고서 달게 잠을 자고 밤을 보내었다. 사람의 습관을 알 수 있음이라. 얼마 있다가 곧 아래로 쫓아 내려갔다. 前日에도 같은 사람이고 後日에도 같은 사람이다. 前日 靑鶴洞에 들어가서는 마치 閨風에 오른 듯 하였다. (그것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겨 또 神凝洞에 들어가서는 瑤池에 오른 듯 하였다.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아득함에 걸터앉아 하늘에 들어가 학을 타고 공중에 올라 세상에 다시 내려오고 싶지 않았다. 後日 좁은 방에서 사람들은 몸을 굽히면서도 분수에 만족한다. 비록 이것이 평소의 분수를 편안히 여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르는 바가 높아야 함과 거처하는 바가 낮지 말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착하게 되는 것도 습관에 말미암는 것이고 악하게 되는 것도 습관에 말미암는 것임을 알 수 있다.²⁰⁾

〈자료1〉 「遊小白山錄」은 李滉(1501~1570)이 풍기군수로 있을 때인 1549년에 소백산을 여행한 체험을 기록한 작품이다. 〈자료1〉의 ①은 산 위가 매우 춥고 매서운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나무가 모두 동쪽으로 숙여 있으며 나무 가지가 왜소하고 나무 잎들이 사월이 되어야 나고 그 중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경물에 대한 묘사이다. ②는 경물에 대한

19) “山上氣甚高寒，烈風衝振不止，木之生也，盡東偃枝幹多樛屈矮秀。四月之晦，林葉始榮，一年所長，不過分寸。昂莊耐苦，皆作力戰之勢，其與生于深林巨壑者，大不侔。居移氣，養移體，物之與人，寧有異哉!” (李滉, 『退溪集』 권41 「遊小白山錄」,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5, 73면)

20) “夜就郵店一室，僅如斗大，尙僕而入，房不展脚，壁不蔽風。方初怫然如不自容，旣而四人抵頂交枕，甘寢度夜。可見習狃之性。俄頃而便趨於下也。前一人也，後一人也。前入靑鶴洞，若登閨風。猶以爲不足，又入神凝洞，方似上瑤池。猶以爲不足，又欲跨漠入靑宵，控鶴庶空，便不欲下就塵寰。後之屈身於坏僕之間，又將甘分然。雖是素位而安，可見所養之不可不高，所處之不可小下也。求見爲善由有習也，爲惡由有也。” (曹植, 『南冥集』 권2 「遊頭流錄」,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7, 203면)

작자의 議論이다. ②에서 작가는 만물은 처한 곳과 기름에 따라 氣體가 변한다고 하였다. 나무의 본성은 일정한데 높은 산이라는 居處와 기름에 따라 나무의 기체가 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대부 유자들이 거처와 기름에 따라 본성이 변할 수 있으므로 본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거처를 가리고 기름에 힘써야 된다는 경계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자료2>에서도 확인된다.

<자료2> 「遊頭流錄」은 曹植(1501~1572)이 상서원 판관 등의 벼슬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전념하던 1558년에 지리산을 여행한 체험을 기록한 작품이다. 위 구절에서 작가와 같이 여행한 사람들은 청학동을 여행하면서 신선의 풍모를 지니고 있다가 여관에 돌아와서는 좁은 방도 달게 여기는 모습을 보인다. 작가는 이를 보고 유자들이 기르는 바가 높아야 하고 거처하는 바가 낮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즉 유자들이 자신의 본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거처를 가리고 기름에 힘써야 함을 경계한 것이다.

이밖에 전대 산수유기에는 학문 도야와 지적 탐구를 언급한 작품도 있다. 李龜(?~1504)이 「遊金剛錄」에서 登山을 통하여 “먼 곳에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을 알았고, 물을 보고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의 뜻을 생각하게 되었다²¹⁾고 한 경우, 周世鵬(1495~1554)이 「遊清涼山錄」에서 “봉우리를 보면 나약한 자가 설 수 있고 폭포소리를 들으면 탐욕한 자가 청렴해질 수 있다”²²⁾고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높은 산과 흐르는 물로 유자가 차근차근 점진적인 자세로 학문에 힘쓸 것을, 봉우리의 솟은 모습으로 학문 도야에 나약한 자에게 용기를, 폭포소리의 깨끗하고 맑은 소리로 탐욕한 자의 청렴해짐을 비유하여²³⁾ 경물의 모습으로 유자가 학문 도야에 힘쓸 것을 표현한 것이다.²⁴⁾

21) “아아, 어진 자는 산을 즐기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즐기며, 높은 산에 올라서서 먼 곳에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을 알았고, 물을 보며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의 뜻을 생각하였다. 하나(산)로써 도중에서 스스로 한계 짓는 나약함을 분발시키는 것이고, 하나(물)로써 구덩이에 찬 뒤에 나아가는 배움을 권면하는 것이다.”(仁者樂山, 知者樂水, 登高山以知行遠自卑之意, 觀水而思逝者如斯之旨, 一以起半途自畫之懦, 一以勉盈科後之學. - 李龜, 『再思堂逸集』 권1 「遊金剛錄」,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2, 27면)

22) “目諸峯, 則儒者足以立, 耳諸瀑, 則貪者足以廉.”(周世鵬, 『武陵雜稿』 권7 「遊清涼山錄」,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6, 3면)

23) 이와 유사한 예는 “여러 산들이 빼어남을 다투고 물이 골짜기에 다투어 흐른다. 절벽이 시냇물 옆에 둘러서 있다. 앞뒤를 둘러보았으나, 들어온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절벽은) 高人烈士가 옷깃을 여미고 서 있는 듯하고, 움직이고 멈추는 것, 몸 동작과 말씀 등이 인간지경이 아니다.”(衆山競秀, 萬壑爭流, 危峯絕壁, 傍溪而立. 瞻後顧前, 遂失所入之路. 如高人烈士斂衽而立, 一動一靜, 儀形言色, 殆非人間之境也. - 李龜, 『遊金剛錄』)라는 구절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시냇가에 둘러서 있는 절벽의 모습을 인격이 높고 위엄 있는 선비에 비유하였다.

24) 이밖에 사대부 유자들이 학문을 도야하는 태도가 名과 實에 맞지 않음을 비판한 경우도 있다. 李龜의 「遊金剛錄」에서 작가가 금강대에 도착하였을 때 동행하였던 중이 금강대에 새 한 쌍이 있는데 사람의 말에 따라 출입하는 것을 보아 학이라고 말한 것을 비판한 구절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작가는 실제 학이 중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고 새의 모양과 林逋의 『鶴譜』와 비교하는데 그 결과 중이 말한 것이 거짓임을 알게 된다. 이에 작가는 중이 학을 알지 못하면서 학이라고 한 것과 새가 중의 말

이상의 자료에서 작가들은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이치를 찾거나 이를 통하여 사대부 유자들이 지켜야 할 바람직한 存養의 태도나 학문도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작가의 진술이 지향하는 것은 사대부 유자들이다. 「金剛錄」에도 이와 같은 구절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양상과 차이가 나는 구절도 드러난다. 다음은 전대의 산수유가와 차이가 나는 구절을 제시한 것이다.

〈자료3〉

한참 걸으니 다리는 무겁고 발은 부르터서 결국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마에 앉았다. 앞에서는 끼어 안고 뒤에서는 당기고 좌우에서는 부축하여 뒤집혀 떨어지는 것을 면했으니 가히 “위험을 행하여 요행을 바란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산수의 승경은 잠시 동안 눈을 기쁘게 하는 것에 불과한데 눈을 기쁘게 하려고 몸을 위험하게 하니 이것은 “어깨와 등을 잃어버리는 것”에 가깝지 않겠는가? 쇠약한 늙은이가 이런 여행을 한 것을 깊이 후회한다. 골짜기를 반도 못 내려와서 왔던 길을 되돌아보니 몸이 아찔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 조그마한 폭포가 냇물에 고여서 못을 이루는데 그 바닥에는 흰 돌이 깔려 있어 앉아서 바라보기가 매우 좋았다. 눈을 즐겁게 하느라고 몸을 잃을 뻔한 것을 후회하다가 오히려 이러한 경치 좋아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산수란 것도 역시 음탕한 소리나 미색과도 같이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仁者와 知者의 樂山樂水가 이런 것인가?²⁵⁾

〈자료4〉

① 만약 비로봉 정상에 올라간다면 우뚝 솟은 것과 흐르는 것들이 흩어져 萬殊가 되는 것을 一以貫之할 수 있으니 공자가 “登泰山而小天下”라고 한 뜻이 천년이 지난 뒤에도 그대로 맞아 떨어진다. ② 돌아보건대 나의 남은 힘으로는 역지로 할 수 없어 능히 오르지 못하여 우두커니 서서 창망히 바라보며 개탄할 뿐이다. ③ 이것이 이른바 우리러 볼수록 더욱 높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돌아가서 스스로 한계를 긋는 것인가? ④ 오랫동안 쌓아서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면 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²⁶⁾

만 믿고 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함을 개탄한다. 새의 모양은 實에 해당하고 중이 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名에 해당한다. 작가는 중이 實을 모르는 점도 비판하였지만 새가 학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면서 중이 부르는 名을 즐긴다는 점도 비판하고 있다. 이때 새는 實없이 虛名만을 쫓는 자이고, 작가는 이를 경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金剛臺, 鶴一雙, 巢於青壁之間, 呼其名而使之出則出, 使之入則入, 出入動止, 在僧指揮. … 與林處士『鶴譜』, 小同大異, 似鶴而非鶴者. 僧曰: ‘果如其言, 則是凡鳥也, 何曉解人言若是也?’ 余應之曰: ‘鷄犬微物也, 然呼來斥去, 在人指揮. 此鳥長生於此山, 馴習於僧, 久矣. … 噫! 僧不知鶴, 而以此鳥爲鶴, 鳥信其僧之呼, 而不自知其身之非鶴, 俱可笑也.’”)

25) “久步脚重足趼, 終乃冒危坐輿. 前擁後引, 左扶右提, 得免顛墜, 可謂行險而僥倖者也. 山水之勝, 不過片時之悅目, 爲悅目而危一身, 此不近於失肩背者乎? 甚悔衰翁作此行也. 下洞未半, 回望來路, 此身恍然從天降. 有小瀑貯溪, 名成潭, 白石鋪其底, 坐翫甚可愛. 以悅目忘身爲悔, 而猶愛此不已, 山水亦如淫聲美色, 使人浸浸然入於其中而不知返者耶? 抑仁智之所樂, 亦如是耶?” (鄭曄, 「金剛錄」)

〈자료3〉은 작가가 험한 길을 오르면서 위험에 빠질 뻔하다가 모면한 체험을 기록한 것이다. 작가가 제삼령에 올라 장안사와 유점사의 중들로 가마를 메게 하였다. 물난리로 절벽이 무너져 길이 없어졌다. 도보로 가는 것도 위태로운데 가마를 타고 가는 것은 더욱 위태로워 도보로 가기로 하였다. 도보로 가다가 힘이 들어 위험을 무릅쓰고 가마를 뺐는데 겨우 넘어 짐을 면했을 정도이다. 작가는 이러한 체험에 대하여 山水의 승경은 눈요기고 자신의 몸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외물에 현혹된 것에 대한 반성이다. 그런데 작가는 다시 산을 내려오면서 산수 경물에 흥취를 느낀다. 이것은 외물에 현혹된 것으로 앞에서 외물에 현혹된 것을 반성했던 것과는 반대된다. 이어서 작가는 다시 자신이 외물에 현혹된 것을 반성한다. 이 구절은 誠敬을 통하여 외물의 현혹을 막고 본성을 보존한다는 存心養性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은 전대의 산수유기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작가가 내면을 성찰하는 구절이 전대 산수유기에 비하여 확대되어 있다. 특히 작가의 내면성찰에서 주목되는 점은 작가가 ‘산수의 즐거움’이라는 하나의 명제에 대하여 단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명제를 제시한 다음 이에 대한 반대되는 견해를 제시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변증법적인 사유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치를 窮究하는 구절에서도 나타난다.

〈자료4〉는 작가가 비로봉 정상에 오르는 것을 학문 도야에 비유한 구절이다. 이 구절의 진술은 일정한 전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①에서 작가는 비로봉 정상에 오르면 만수를 一以貫之할 수 있으며 이것을 공자의 ‘登泰山小天下’의 뜻과 같다고 하여 학문 도야에 대한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②에서 작가는 자신의 능력을 살펴보니 비로봉에 오를 수 없다고 하여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탄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에서 작가는 登頂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수록 높아 도달하지 못하는 경지인지’, 아니면 ‘스스로 한계 짓는 나약함 때문인지’를 自問하고 있다. ④에서 작가는 자신도 부지런히 오랫동안 쌓으면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①에서는 이치를 설명하였지만, ② 이하에서는 작가의 내면성찰이 드러난다. ②에서 작가는 성인의 경지는 범인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③에서는 ②의 단정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④에서는 ②와는 반대로 성인의 경지는 중간에 한계 짓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료4〉에는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에 대한 작가의 내면성찰이 확장되어 있다. 내면성찰에서 주목되는 점은 작가가 ‘범인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다시 이에 반대되는 ‘범인도 노력하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가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²⁷⁾ 이것은

26) “若上毘盧絕頂，則峙者流者，散爲萬殊者，庶可一以貫之，而吾夫子小天下之意，隔千載而相契矣。顧此餘力不可強，其所不能攀登躡躑，則佇立夷，猶悵望而已，慨歎而已。此所謂仰之彌高，卓乎其不可及者耶？抑無乃歸於自畫者耶？久久積累，自卑而高，則可以上達矣。”(鄭暉, 「金剛錄」)

27) 이 구절은 「關東別曲」과 유사하다. 「關東別曲」의 관련 구절은 “비로봉 상상두의 올라보니 기 뉘신고/ 동산태산이 어느냐 높듯던고/ 노국 조분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넘거나 넘어 천하 었씨하야 적닷말고/

정업의 학문 도야에 대한 변증법적 사유를 보이는 것이다.

변증법적 사유는 작가가 하나의 명제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견해를 용인하는 것이다. 전대 산수유기에는 <자료1>과 <자료2>에서 보았듯이 존심양성이나 공리에 대하여 하나의 명제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점에서 「金剛錄」이 전대 산수유기와 차이가 난다. 鄭曄이 이러한 변증법적 사유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의 사상과 그가 살았던 시대적 환경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므로 무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단지 鄭曄이 계축옥사를 겪으면서 옳지 못한 일이 횡행하는 광경을 목격하였고 이에 대하여 가책이나 갈등을 느꼈다는 행적을 고려한다면 그가 그 동안 믿었던 명제들에 대하여 회의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경향을 지니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景物의 不遇와 隱者로서의 처지대입

<자료1> 金駟孫, 「頭流山行錄」

저물녘에 숲을 지나노라니 길이 몹시 가파르고 나무들이 무성하여 다리가 빠진다. 그 아래는 모두 오래된 대나무가 있어 죽순이 땅을 뚫고 나오고 있었다. 마구 밟고 지나노라니 큰 뱀이 길을 막기도 하고 저절로 넘어진 나무가 앞을 가로막는데 모두 거대한 재목이다. 혹 몸을 구부려 그 아래를 지나가고 절름발이처럼 그 위를 지나가기도 하였다. 그것(材木)이 좋은 목공을 만나지 못하여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이지 못하고 산 속에서 말라죽은 것을 생각할 때 조물주를 위하여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들 역시 제 나이대로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니겠는가!²⁸⁾

<자료2> 李珥, 「遊靑鶴山記」

이 산은 光輝를 여러 산봉우리와 골짜기에 숨기고 있어 그 언저리도 살펴본 사람이 없는 데 하물며 그 산 속에 있으서라? 세상 사람들이 알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산에 손익은 없겠지만, 생각건대 사물의 이치는 마땅히 그러하지 않다. (이 산이) 하루아침에 우리들을 만나

어와 더 디워될 어이 하면 알 거이고"이다. 이 구절은 공자의 登泰山小天下라는 명제와 이에 대한 반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친 후의 결론이라는 변증법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조세형은 이 구절에 대하여 "진리 탐지자의 목소리와 그 탐색자의 목소리가 극적 대화에 근사한 형식으로 재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金剛錄」의 인용구절에서 상반된 견해들은 『孟子』("孔子登泰山而小魯, 登泰山而小天下"), 『論語』("仰之彌高, 鑽之彌堅, 瞻之在前, 忽焉在後"), 『中庸』("君子之道, 譬如行遠必自邇, 譬如登高必自卑")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므로 '이질적인 목소리'에 의한 '극적 대화'로 보기는 어렵다. 단지 정업은 학문 도야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하였고, 이것을 내면에서 명제제시, 반론, 결론에 이르는 변증법적 과정으로 표현하였다. 조세형, 「송강가사의 대화전개방식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0, 24면 참조.

28) "行林薄中, 路甚梗, 樞翳沒身. 其下皆苦竹, 笋芽出地而茁. 亂蹠而行, 蛇虺當道, 木之自仆者, 相着於前, 皆樞南豫章之材也. 或偃偻出其下, 或蹙蹙行其上. 乃思其不遇於匠石, 不見備於棟樑之用, 而枯死空山, 爲造物可惜. 然亦終其天年者歟!"(金駟孫, 「頭流紀行錄」,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7, 169면)

서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산이 있음을 알게 한다면 이것이 또한 이 산의 運數이다. 또한 (우리가) 신령스런 경치가 세상밖에 감추어져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요? 이 산보다 더 神異한 것이 있는데도 우리가 역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아아! 세상에 만나고 만나지 못하는 것(遇不遇)이 산뿐이겠는가!²⁹⁾

〈자료1〉은 거대한 재목들이 좋은 목공을 만나지 못하여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이지 못하고 산 속에서 말라죽는다는 내용이다. 작가는 ‘이것들’ 역시 수명을 다한 것이라고 하여 재목의 불우가 운명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다. 거대한 재목은 뛰어난 인물의 비유로 볼 수 있다.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인물이 그것을 알아볼 주인을 만나지 못하여 헛되이 죽는 것도 운수라는 의미이다.

〈자료2〉에서 작가는 청학산이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다가 작가 일행을 만남으로써 후세에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 청학산이 작가 일행을 만난 것은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運數이고, 사물이 마땅한 사람을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은 인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³⁰⁾

〈자료1〉과 〈자료2〉는 경물의 불우로 인간의 불우를 비유하고 있으며 불우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점이 일치한다.

이밖에 전대의 산수유기에는 경물의 불우에 대하여 작가의 감정이 드러난 작품이 있다. 하지만 이 때에도 작가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대입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비판이 주를

29) “茲山乃藏光匿輝於重巒複壑之中，無人闖其封域，況闕與乎？世人之知不知，於山無所損益也，顧物理不當爾也。一朝遇吾輩，使後人知有此山，斯亦有數焉耳。又安知更有靈境祕於塵外，尤異於此山，而吾輩亦未之知耶？嗚呼！世有遇不遇者，獨山乎哉！”(李珣, 『栗谷全書』 권13 『遊青鶴山記』,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4, 421면)

30) 이와 같은 예는 黃汝一(1556~?)의 「遊內迎山錄」, 沈光世(1577~1624)의 「遊邊山錄」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작품에 따라 경물이 不遇한 원인을 ‘장소 때문이라고 보는 경우’, ‘운수로 보는 경우’, ‘때 때문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다. 不遇의 원인을 장소로 보는 경우의 대표적인 작품이 「遊邊山錄」이다. 「遊邊山錄」은 沈光世가 변산의 군수로 재직하던 1617년에 여행한 체험을 기록한 작품이다. 작가는 변산에 있는 龍巖을 보고 용암이 사람들이 소요하고 깃들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勝景을 지니고 있지만, 궁벽한 바다와 거친 모퉁이에 있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선비의 處世도 이와 같다고 하였다(“令人起逍遙棲息之心者，又遠過於船巖矣。噫！使茲巖，在於畿甸之間，則好事之人，必有欣賞而愛之，延譽而傳之者矣。必不若是其浪浪無聞也，只緣棄在於窮海荒陬，故埋沒而莫之見。… 土之處世，亦何異於是？可慨也已！ -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9, 51면). 불우의 원인을 時로 보는 경향의 대표적인 작품이 「遊內迎山錄」이다. 「遊內迎山錄」은 黃汝一(1556~?)이 숙부와 함께 내영산을 여행한 체험을 기록한 작품이다. 작가는 내영산을 여행하던 중 海月樓의 빼어난 경관을 보게 된다. 해월루에 있는 周世鵬과 李彥迪의 기록을 보고 누각의 처음 이름이 海竹이었는데 김씨 성을 가진 태수가 부임하여 靑梢로 바꾸었고 다시 이씨 성을 가진 태수가 부임하여 海月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사실을 알게 된다. 작가는 海月樓가 사람을 만남에 따라 3번이나 이름이 바뀌게 되었는데 物의 遇는 時가 있는 것이며 사람의 不遇도 時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海月樓之下有池，池則蓮也。池之上有塢，塢則竹也。竹之外有百日紅，… 靑梢樓，舊名梅竹，有金太守者新之，孔寧海瑞麟，改以臨溟，周慎齋記之。其後李太守者，增其制，高其基，豁其軒楹，而專其海月，遂改以今名，李先生晦齋記之。噫！茲樓三變名而得遇兩斯文大修，一日而遂名於嶺之南七十州，信乎物之遇各有時也。人而不遇白首潛荒，所謂時者，孰主張耶？” -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6, 550면).

이룬다. 비판은 은거자들의 잘못된 은거를 질책한 경우와 인재를 버리는 위정자를 질책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되는 작품이 曹好益(1545~1609)이 1585년 묘향산을 유람하고 지은 「遊妙香山錄」이다.

배를 타고 언덕을 따라 올라가니 강에 돌이 누워 은은히 바닥에 잠겨있다. 물결이 잔잔히 일어나매 돌의 모양이 완연한데 이른바 臥龍橋이다. 내가 배에서 밑을 굽어보니 돌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었다. 나는 汝寅에게 “이 돌이 명성을 얻은 것은 수중에 있기 때문이네. 만약 한번 모습을 드러나게 한다면 평범한 돌에 지나지 않을 것이네”라고 하였다. 汝寅이 웃으며 “세상에서 산림에 은둔하는 자들이 왕왕 實(실)이 없이 있고 있으니 그대의 말은 마치 郝隆이 ‘謝安은 은거할 때는 원대한 뜻이 있다가 벼슬하면 소초와 같다’라고 비방한 것과 같네”라고 하였다.³¹⁾

작가는 水中에 있는 돌이 臥龍橋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水中에 있기 때문이며 물 밖으로 돌이 드러나면 평범한 돌에 지나지 않듯이 산림에 은둔한 자도 이 돌과 같아서 그들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그 실제 가치는 평범한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작가는 지금의 은둔자들이 명성만을 얻기 위하여 은둔한 것이지 실제 올바른 은둔이 아니라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遊妙香山錄」의 다른 부분에 작가가 길을 가다가 獨松亭이란 곳에 이르러 주위에 있는 오래된 소나무에 도끼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소나무가 있어야 할 장소를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동행인인 汝寅은 소나무가 때를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동행인인 仁叔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다.³²⁾ 작가와 동행인들의 대화를 통하여 소나무의 不遇가 場所나 時, 사람 때문이라는 견해가 드러난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불우의 원인이 사람 때문이라는 구절이 놓인 것을 보아 사람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람은 인재를 버리는 위정자를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遊妙香山錄」에서 불우에 대하여 작가의 감정이 나타나지만 작가 자신의 불우한 처지가 대입된 것은 아니며 명예를 얻으려하는 당대의 은둔자, 인재를 버리는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鄭華의 「金剛錄」에 나타난 不遇를 살펴보기로 한다. 「金剛錄」에서 작가가

31) “遂引船而沿厓而上，有石臥江，隱隱潛底。波紋淪漪，蜿蜒有形，所謂臥龍橋也。余俯而視之，盡得其狀，顧謂汝寅曰：‘此石所以得名者，以在水中也。使一露形，則不過一尋常頑然者爾。’汝寅笑曰：‘世之遁迹山林者，往往無實以繼之，如郝隆小草之譏，亦吾子之意也。’”(曹好益, 『芝山先生文集』 권5 「遊妙香山錄」)

32) “行四十餘里，皆峨洋之間，道傍有古松一株，其大芘駟，接巒蒼蒼，臨波粼粼，號曰‘獨松亭’。余愛而撫之，則有斧痕焉。噫！爾松托根失所，以有此厄，使爾在峨胸之巔，友傭僮之徒，則幾死焉得侮之。汝寅曰：‘失所則然矣。酷熱流金，清陰漱玉，揮杖息肩，人挾冰雪之寒，松於是時，隱籟多矣。愛忘角弓，害尋斧斤，彼強強者，可勝誅耶？’仁叔曰：‘昔人且有爲植道周以此行者，松之在此，夫豈無意，顧憇伐之者，人也。’”(曹好益, 「遊妙香山錄」)

바닷가에 인접하고 계곡과 산이 만나는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자신이 살 만한 곳³³⁾이라고 하는 것처럼 작가가 은거를 동경하는 구절이 「金剛錄」의 여러 부분에서 산견된다. 다음은 「金剛錄」에서 작가가 경물의 불우를 진술한 구절이다.

〈자료3〉

아아! 쇠랑동의 맑고 빼어남은 만폭동에 버금가는데 이것만이 홀로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으니 세상의 隱과 顯이 사물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한 것이다. 그 만나고 만나지 못함이 같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그 사이에 운수가 있는 것인가? 속세의 발자취에 더럽혀질까 하여 산신령과 수신이 아끼고 감추어서 드러내지 않는 것인가? 내가 듣기에 관의 행차는 험한 것을 꺼려서 이곳으로 다니지 않고 단지 중들이나 때때로 왕래한다고 하니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알려지고 알려지지 않음이 산수에게 무슨 손익이 있겠는가? 지금 천고의 세월 뒤에 나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생각건대 나의 聲名과 氣勢가 이미 當世에 크게 쓰이지 못하는 처지이고 후일 굉장한 문장력을 발휘할 수도 없을 터이니 세치 혀를 늘려서 수다스럽게 칭송한다 해도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러나 나 또한 세상을 만나지 못한 자이니 새들을 벗하여 낚시질하는 隱者로서 여기 바위 사이에 살며 시냇물이나 들여다보며 여생을 마친다면 이 산이 세상에 명성을 떨침이 비록 邵雍의 百源이나 朱熹의 武夷보다는 못하겠지만, 終南捷徑의 終南山이나 北山移文의 北山은 이 산에 비한다면 하인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 서로 만남이 장차 어떠하겠는가?³⁴⁾

작가는 쇠랑동이 만폭동에 버금가는 승경을 지니고 있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은 運數라고 하였다. 이것은 다른 산수유기 작품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 이어지는 구절이 주목된다. 작가는 쇠랑동이 작가와 만났고 이 만남이 쇠랑동의 명성에는 이득이 될 것이 없지만 작가 자신도 不遇한 처지이므로 생애를 마칠 때까지 서로 은둔한다면 오늘의 만남이 유익할 것이라고 하였다. 위 구절에서 '나' 라는 작가 자신이 표면화되어 있고, 작가의 불우한 처지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처지를 쇠랑동의 불우와 동일시하고 있다. 결국 작가는 쇠랑동의 불우로 일반적인 인간의 불우에 대한 이치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대입한 것이다. 정엽은 조정의 환란을 겪으면서 자신이 때를 잘못 만난 사람으로 생각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생각이 경물의 불우에 자신의 처지를 대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3) “夕暮冒雨，馳入烈山，古館荒涼，板上唯有申公遺什。此地與海曲少遠，溪山回合，民居亦稍多。余謂兩甥曰：‘若非瀾水波，此中可居。’羅曰：‘與世隔絕，理亂不聞，非遜世者不可居。’”(「金剛錄」)

34) “噫! 洒郎洞之清絕，可伯仲於萬瀑，而此獨寥寥無聞於世，世間隱顯，在物亦然。其有遇不遇之不同歟? 抑亦有數於其間者耶? 塵蹤俗迹，若將洗焉，山靈水神，慳秘而不發耶? 余聞官行憚險，不路于此，只有雲衲，時時往來，其不見知於世宜也。然知不知，於山水何所損益焉? 今千載而見知於余，而顧余聲名氣勢，既不能取重於當世，長杠巨筆，又不能發輝於他日，則棹三寸而喋喋稱頌，竟何益? 然余亦不遇於世者，將鳥舉豹隱，考槃于茲，岩居而川觀，以終餘生，則此山之名於世，雖下於康節之百源，考亭之武夷，而捷徑之終南，移文之北山，可與臺於此矣。其相遇也，將如何哉?”(「金剛錄」)

4. 결 론

본고는 鄭曄의 「金剛錄」에 나타난 의론이 전대에 창작된 산수유기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차이점이 무엇이고 「金剛錄」의 창작 배경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작품의 창작 배경, 「金剛錄」에 나타난 의론의 성격을 살펴보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鄭曄은 1583년 21세의 나이로 환로에 든 이후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며 중앙 관리로 승진을 계속하던 중 계축옥사를 계기로 강원도 양양부사로 부임한다. 지방관으로 내려오게 된 동기를 계축옥사를 전후한 정엽의 행적을 통하여 중앙 관인으로서의 갈등과 가책, 조정 현실에 대한 환멸 등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점은 「金剛錄」에 나타난 의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金剛錄」에 나타난 의론에는 전대의 산수유기와 같이 백성들의 곤궁한 삶에 관심, 외물의 현혹을 막고 본성을 보존하려는 存養,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찾으려는 窮理, 景物의 不遇 등의 내용이 보인다. 정엽은 조정 관인으로서 조정에서의 권력 다툼에 대한 환멸과 가책과 갈등을 느끼고 지방관으로 내려온다. 그는 지방에 내려와 백성들의 삶을 보고 조정에서 느꼈던 감정이 상승 작용하여 조정을 비판하거나 관인으로서의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 또한 정엽은 유자로서 금강산을 유람하며 자신의 심성을 수양하고 사물에 내재된 이치를 찾으려고 한다. 정엽은 계축옥사를 겪으면서 옳지 못한 일이 횡행하는 광경을 목격하였고 이에 대하여 가책이나 갈등을 느끼는데 이것이 원인이 되어 심성 수양이나 궁리에 대하여 단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고 내면에서 하나의 명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진술한 다음 결론에 도달하는 변증법적 사유를 보이게 된다. 정엽은 조정의 환란을 겪으면서 자신이 때를 잘못 만난 사람으로 생각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생각이 경물의 불우에 자신의 처지를 대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金剛錄」에 나타난 의론은 내용에서 전대 산수유기와 일치하지만 진술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의론에 작가의 반성, 내면성찰, 불우의 감정 등 작가의 내면성이 두드러진 것이 그것이다.

「金剛錄」에 나타난 의론의 이러한 특징은 17세기 계축옥사를 전후하여 지은 산수유기에 나타난 의론이 '이치를 설명하는 진술'에서 작가의 '내면이 첨가되는 진술'로 질적인 변모를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金剛錄」에 나타난 의론의 특징은, 당대에 지어진 권업(1574~1650)의 「龜沙金剛錄」이 경물 묘사에서 전대 산수유기와는 다른 새로운 표현을 보이는 점과 18세기 이후 산수유기에서 의론은 축소되고 경물의 실경 묘사에 치중하는 점 등

으로 보아, 17세기의 산수유기가 의론의 표현과 경물의 묘사에서 변모를 보이다가 18세기의 산수유기에 이르러 경물의 묘사에서 커다란 변모를 보인다는 전망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점에서 「金剛錄」에 나타난 의론은 산수유기의 사적 변모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잠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본고는 「金剛錄」이라는 한 편의 산수유기를 대상으로 하였고, 작가의 교우 관계와 사상적 경향, 계축옥사를 전후한 시기에 지은 시문 등을 포함한 작가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망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정업에 대한 종합적 고찰과 함께 의론을 중심으로 17세기에서 18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산수유기와의 폭넓은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이후의 과제로 남긴다.